

보름법회 날인데도 10여 명의 불자만이 법회 후 오붓이 한 가족처럼 점심 공양을 하고 있는데, 암주인 도호스님은 '우리 휴휴암 신도는 다 왔다'고 도리어 자랑을 한다. 스님은 아무 걱정도 없는 듯 신도들 또한 너무나 여유로운 공양이다. 넉넉지 못한 암자이지만, 단청 없는 투박한 대웅전은 스님과 어울리고, 스님의 당당한 모습은 수행자의 기백이 그대로 묻어난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발왕산 강릉휴휴암



휴휴암 휴식처

'휴휴'란 쉬다는 의미로 마음도 다시 한 번 쉬라는 말이다. 쉬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쉬어라. 그것이 곧 상을 비우는 것이며, 구경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항상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는다. 이것은 육체는 쉬어도 마음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휴암 오르는길



## 10년 불사로 이루어 낸 금강경 목판 한 수행자의 구도정신과 60여 불자의 무주상 보시

휴대전화조차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강원도 왕산면 대گیری, 인연도 웬만한 지중함이 아니면 맺어지기 힘든 그곳에, 손끝으로 느껴 보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살아 있는 금강경 목판이 있다.



금강경 목판

10여 년 전, 일상의 한 사람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평생 한 번도 당하기 어려운 교통사고를 연이어 세 차례나 당하고, 육체적 장애를 얻어 요양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수행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허름한 농가를 얻어 약초를 캐어 생식으로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몸이었지만 수행자의 본분으로 봉암사 하안거를 마치고 경기도 이천의 도반을 만나고 오면서 목아 박물관에 들러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조각을 시작하게 되었다. 생전 처음으로 조각칼을 들게 된 스님은 작품 이전에 재확인동이라 생각하면서 농가 주변에 장승을 세우기 시작했다. 차츰 건강이 좋아지면서 인연 있는 불자들의 도움으로 재목을 얻고 법당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고 평생 원력이었던 '금강경 목판 불사'를 시작하였다. 해인사 대장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열린 경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순수한 원력과 불자들의 무주상 보시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 아래, 강릉·동해·삼척·양양 등 영동권의 서예원과

문화원에 일일이 전화로 문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불사를 함께 할 불자들을 찾았다. 5,200여 자가 넘는 금강경을 1인 87자로 세분

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다닌 수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불자 된 인연으로 고가의 재목을 기꺼이 보시한 경기도 광주의 목재소를 운영하는 불자님, 금강경 사경을 물론 법계도 사경까지 도와주신 너무도 고마운 불자님들, 그 중에서도 금강경 사경을 매일 한 장씩 쓰며 기도한 나이 어린 아리와 하민 등 모두가 불사를 이루기 위해 보내 주신 부처님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스님은 되새긴다.

### 60여 불자가 1인 87자 사경, 스님은 각(刻) 62개 목판으로 금강경 조성봉안

하여 사경을 맡기기로 하고, 한반도 방문하여 설득하기를 1년여 60여 불자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1년간의 사경 시간을 주고 부탁하게 되었고, 기꺼이 불사 인연에 동참한 60여 불자는 1년간 맡게는 수백 장씩을 쓰고 그 중에서 잘 된 1장을 각인하게 되는 실로 장엄한 불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정성으로 사경한 금강경을 받아 스님 혼자 각을 하게 되는데 새벽기도를 마친 오전 5시에서 11시까지 각인 작업을 1년간 하게 되었다. 세밀한 경판 각을 처음 하는 스님은 부처님 불사의 염원 하나로 손을 베이고 근육이 마비되는 고통을 기도 일념으로 이겨나갔다. 죽어서도 그 생명력이 오래 간다는 알레스카신 홍송



삼정각 법계도

### 원상당 해관선사 사리탑 청정수행의 사표로 보이신 은사스님



대웅전을 돌아 비탈길을 오르며, 스님의 은사스님 원상당 해관선사의 사리탑이 있고, 법당 안에는 영정이 모셔져 있다. 웅인 백암의 옛 오도 선원의 장건주로서 평생 선수행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해관선사의 비취색 사리가 스님의 청정한 수행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리 수습 당시에 많은 사리를 남겨 수행의 경지를 보여주신 선사는 도호스님이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청정비구의 기백을 잃지 않는 기풍이 되어주시고 있다.

### 신도 3진 아웃제 공부하지 않는 불자는 오지도 마라



휴휴암 요사채

인연을 강조하는 스님이지만 공부하지 않는 불자는 반기지 않는다. 증생이기에 모르는 것이 모르고야 묻고 공부해야 한다. 짚에 오거든 무엇이든 질문해라. 그렇지 않으면 짚에도 오지마라. 휴휴암에는 신도 3진 아웃제라는 원칙이 있다. 3번 이상 묻지 않으면 짚에 오지 못하게 한다.

### 인연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룰 수 있었던 불사

"인연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수행자에게 본분을 일깨워준 모든 분들이 부처이십니다. 감히 있는 경판을 보면서 모든 부처는 경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 경전은 우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모든 불자가 손으로 만져보고 참배하면서 경전 자체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부처님께 다가가게 하고 싶다. 이 원력이 이루어진 것은 장애를 주시고 경책하고 불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부처님의 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방황하던 출가 이전에 금강경을 주시고 읽게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한 보살님과의 인연 때문으로 그때 금강경 30만독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강경 경판 봉안 도량으로써 불자들의 참 기도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휴휴암 임주 석도호

### 대한불교 조계종 발왕산 휴휴암

금강경 목판 봉안 조성 도량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گیری리 2107  
암주 석도호  
033-562-7196. 011-9968-5244

오시는길 강릉 IC에서 성산방면으로 나와, 오봉호수 끝에서 우측으로 대گیری리 방면 진입. 닭목령 넘어 배나드리에서 11km 한터